

# 구텐베르크와 컴퓨터의 공존

김성곤

서울대 교수·영문학

이번 여름 미국에 갔을 때, 미디어 플레이(media Play)라는 곳을 자주 갔다. 그곳은 커다란 매장을 둘로 나누어 종이책과 CD-ROM을 동시에 판매하는 일종의 '전자서점'이었는데, 드넓은 휴식공간과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원두커피 판매대까지 있어서 폭염을 피해 쉬면서 책 순례하기에는 참으로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의자가 놓여진 한쪽 휴식공간에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한가롭게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전자게임과 전자음악과 전자책에 몰두해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재빠르게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많이 왔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어른들은 종이책으로, 아이들은 플라스틱 쪽으로 갈라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과 플라스틱 책, 활자와 영상, 그리고 구텐베르크와 컴퓨터의 대결은 전혀 살벌하지 않았다. 거기 두 세계는 조용히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고, 두 세대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감동 속에서 각자의 미디어(매체)에 심취하고 있었다. 간혹 두 세계를 조화라도 시키려는 듯, 종이책들 사이에서 디스켓이 떨어나오는 '디스켓 책'이 발견되었고, CD-ROM 진열대에서는 CD-ROM과 종이책이 같이 포장된 것들이 눈에 띄었다. 전자책에 싫증이 난 아이들은 때로 종이책 진열대로 넘어왔고, 종이책에 싫증이 난 어른들 역시 호기심을 갖고 플라스틱 진열대로 넘어갔다. 사방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CD-ROM 검색하는 소리의 사각거리는 소리 뿐, 거기에는 어떤 심각한 충돌도 갈등도 소음도 없었다. 그 전자서점은 그 두가지 매체를 조화시켜주는 '미디어 플레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근처의 유명 서점인 '반스 앤 노블'과 역시 잘 알려진 컴퓨터 체인 '컴퓨터 시티'의 소프트웨어 매장은 늘 한산했다. 왜냐하면 '반스 앤 노블'과 '컴퓨터 시티'는 어떤 의미에서 각각 과거와 미래의 표상일 뿐, 현재의 리얼리티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 플레이'는 바로 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둘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그곳에 갈 때마다, 빈약한 내 서가와 텅 빈 내 컴퓨터를 위해 종이책과 플라스틱 책을 반반씩 사왔음은 물론이다.

결국 구텐베르크와 컴퓨터는 당분간 공존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전통과 혁신,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역동적인 관계를 본다. 영어가 점차 세계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글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오늘날 영어는 마치 첨단 컴퓨터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마치 종이책처럼 '거기에 남아 있어 being there' 언제나 정겹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없어지는 것은 낡은 모델인 XT, 286, 386 컴퓨터들이지 결코 종이책이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것 역시 퇴물이 된 외국어들이지 결코 한글은 아닌 것이다(일단 낡으면 '고전'이 되지 못하고 '고물'이 되어 폐기처분되어버리는 것—그것은 모든 포스트모던적인 것의 비극이다).

종이책을 펼치거나 플라스틱 책을 작동시킬 때나 언제나 만나게 되는 것은 '문자'이다. 비록 하나는 종이 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크린 위에 씌어지는 차이는 있지만, 종이책과 플라스틱 책은 둘 다 문자에 의존하고 있다. '미디어 플레이'에서 가족들이 잠시 갈라지더라도 경계를 넘어 곧 다시 서로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문자는 세대간의 격차를 좁혀주는 가교가 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자를 사용한 책—그것이 종이책이건 플라스틱 책이건 간에—을 출판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컴퓨터시대에 맞이하러 이 뜻 깊은 한글날에 우리 글, 우리 문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표지 인터뷰	2 '사회사 연구 총서' 펴내는 신용하 교수
저자 초대	3 고희 맞아 세권의 의학서 펴낸 기창덕 박사
긴급 진단	4 유통대란시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한기호
	6 서점폐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손재완
출판계 소식	7 단행본 출판사들의 공동창고 기공식·외
특별 논단	8 우리보다 더 소중히 우리말 다루는 외국사전—이상섭
	9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글들—이오덕
	10 컴퓨터 통신에 나타난 말과 글의 오염—이정민
	11 우리말 문화의 외래어 적조 현상—박용수
리뷰	12 다양하게 나와 있는 우리말 특수사전들
특집/CD롬 출판 의 현주소	14 CD롬 타이틀 어떤 것 나와 있나
	16 CD롬은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나
	17 국내 CD롬 타이틀 개발의 문제점
	18 책으로 익히는 CD롬의 새로운 세계
	19 전자출판물 이용을 위한 '특수공간들'
저서와 학문세계	20 김용섭 교수의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이호철
얼굴	21 자전수필집 펴낸 범우사 윤형두 사장
기획시리즈	22 책에서 체험하는 우리 음악의 '소리꼴'—김현선
책이 있는 에세이	23 세월의 상처, 삶의 변방—고재중
서평	24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정해구
	이태진 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이현희
	25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정진성
	정장진 <두개의 소설 혹은 두개의 거짓말>—방민호
	26 임경순 <20세기 과학의 쟁점>—이호연
	월드룸 <카오스에서 인공지능으로>—김동광
	27 바쟁 <잔혹영화>—이영일
종합서평	28 내 안에 갇힌 또다른 자아의 거듭나기—최성일
이 책 그 사람	30 <네이티브 스피커> 펴낸 이창래씨
	<머리에도 표정이 있다> 펴낸 이은정씨
	31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펴낸 강준식씨
	<자신의 날개로 날 때 아름답다> 펴낸 정미홍씨
세계의 출판	32 오스트리아 문화 한자리에 모은 축제·외
	34 신간안내/44 새로 나온 책